

노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지리적 근접성에 대한 연구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경숙*

노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지리적 근접성은 각 세대가 고유하게 경험하는 생애이력의 조건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이 논문에서는 1990년대 초기 미국과 1980년대 후기 일본에서 노인 부모와 중장년 자녀의 생애이력 조건이 세대간 지리적 근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들 영향의 사회간 유사성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비교 연구한다.

미국과 일본에서 보이는 세대간 근접성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3년 70세 이상의 미국 백인계 노인 중 약 절반이 그들의 자녀 중 한 명과 10마일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살고 있고 나머지 자녀와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일본에서 보이는 지리적 가족망은 좀더 위계적이다. 1989년 70세 이상의 일본 노인 중 74%가 한 명의 자녀와 같이 살고 있고 나머지 자녀들과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여기에서는 두 사회에서 보이는 부모-자녀간 지리적 근접성에 1) 노인 부모와 자녀들의 생애이력의 조건과, 2) 노인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제·환경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미국에서 1993년 실시된 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AHEAD), 일본에서 1989년 실시된 "제2차 가족 생애과정과 가구 구조 변화에 대한 인구학적 조사"(DSFH), 그리고 미국 주와 일본의 도 단위의 경제·환경 지표들이다. 가족단위로 총화된 자료에서 발생하는 표본의 비독립성 문제를 가족망(family network) 분석기법을 통해 통제하였고 비응답으로 손상된 자료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작위 우도적합도 방법과 random likelihood based inference method, 이차회귀식(two stage equation) 방법을 활용하였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발전연구소

1. 머리말

노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지리적 근접성은 각 세대가 소유한 경제적·정서적 자원을 교류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부모와의 지리적 근접성이 자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가족내 위계적으로 분화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좀더 거시적 수준에서, 세대간 연대와 부조에 기여하는 지리적 근접성의 기능은 산업화 수준과 교통기술의 발달정도에 따라 억제되거나 활성화될 수 있다. 한편으로, 도시환경내 고도로 유동적인 직업구조는 가족 성원들의 지리적 이동을 조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한편으로 교통기술의 발달은 가족 성원들이 보다 빈번하게 왕래하는 것을 고무하며 공간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조와 유대를 유지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유사한 도시화와 산업화수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에서 노인 부모가 자녀들과 이르는 지리적 거리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3년 70세 이상의 백인계 노인 중 15%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고 반 정도가 10마일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자녀 중 한 명과 떨어져 살고 있다. 일본 노인 부모와 자녀간의 지리적 근접성은 보다 응집적이다. 1989년 70세 이상의 일본 노인 중 74%가 자녀 중 한 명과 함께 살고 있으며, 16%가 자녀와 떨어져 살되 같은 도 안에 살고 있다. 한편 두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는바, 노인 부모들은 나머지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사회에서 보이는 가족별 그리고 가족내 부모-자녀간 근접성의 고유한 형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1) 노인 세대와 자녀 세대들의 생애이력의 조건들과, 2) 노인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경제·환경적 특성과, 그리고 3) 미국과 일본사회에서 독특하게 강조되는 문화적 규범성이 세대간 지리적 근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미국에서 1993년 실시된 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AHEAD)와 일본에서 1989년 실시된 “제2차 가족 생애과정과 가구구조에 관한 인구학적 조사(DSFH)”를 이용하여 부모와 자녀 개인의 특성이 일대일 조응된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가족단위로 조응된 부모-자녀의 자료에 미국 주와 일본의 도 단위의 경제·환경적 지표들을 통합하였다. 가족단위로 총화된 자료가 가지는 표본의 비독립성(independence) 문제를 보완하는 동시에 세대관계의 가족내

차이와 분화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에 사는 자녀와 나머지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족망(family network)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세대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젊은층이나 노인층 중 일방의 생애 조건에 초점을 한정시킨 기존의 일세대 접근을 다세대 접근으로 확대시킨다. 둘째, 이 연구는 세대간에 형성된 지리적 근접성을 보다 구성적인 가족관계망에서 살펴보고 있다. 셋째, 이 연구는 미국의 개인주의와 일본의 가족주의가 세대간 지리적 근접성을 규정하는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세대관계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발전시킨다.

2. 기존 이론 및 연구 과제

고도로 도시화된 미국과 일본에서 보여지는 세대간 근접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한 요인으로서 두 사회에서 노인 부모의 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산업화와 근대화는 노인층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킨다는 근대화론과는 대조적으로, 1930년 이후로 광범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과 평등고용기회를 보장하는 미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들은 노인들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국 노인의 경제적 지위가 개선된 예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빈곤율은 1950년대 35%에서 1990년 12%로 크게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 (Bureau of the Census, 1991).

일본의 경우 국가단위의 사회연금보장제도는 1961년에 제정되었고,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무상의료체제가 1973년 제정되는 등 사회보장과 노후복지에 관한 사회적 노력들이 1960년대 이후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정부예산으로 소용되는 사회보장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서구사회에 비해서 그 수준이 아직 낮은 실정이다. 결국, 현 시기의 많은 일본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부터 실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Prime Minister's Office, 1991). 예를 들어 현재 미국 노인과 일본 노인들의 주소득원을 비교하면, 70세 이상의 미국 노인의 소득 중 80%가 공공연금이나 사적 연금으로 구성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노인에 해당하는 비율은 50%에 머무른다(Prime Minister's Office, 1991). 제한된 연금 혜택을 보조하기 위해서, 많은 일본 노인들이 취업 전선

에 머물러 있거나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Prime Minister's Office, 1991). 상대적으로 열세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일본의 전통적인 가족 부양에 대한 강조가 노후 복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지체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지적도 있다(Lee, 1987).

두번째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자녀세대들의 특성이다. 현 미국에서 70세 이상의 노인들의 자녀들은 1940년대 중후반에서 1950년대 초반에 걸쳐 출생한 베이비붐 코호트들이다. 10대 혹은 20대에 이를 때인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에, 이들은 시민권운동과 베트남전쟁을 경험하였고, 기존의 지배적인 성, 인종 차별구조와 전통적인 가족관계에 도전하는 세대로 활약하였다. 또한 이들은 전후 장기적으로 지속된 경제 호황이 처음으로 불황으로 변하던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순탄하지 못한 노동 이력을 경험하였다. 이같은 노동시장의 불리한 입지점과 가치관의 변화로 현 중장년층의 결혼과 가족형성 행위는 그들 부모의 세대와는 상당히 다르다. 가족유대에 대한 약화된 태도의 결과 혼전 동거 경향이 증가하였으며, 그들의 자녀 세대가 청장년층이 된 현재에는, 동거가 결혼제도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지속된 경제적 침체로 인해 결혼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남녀들조차 결혼시기를 지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경제적 불안은 결혼생활의 불안으로 이어져 이혼율과 재혼율을 증가시켰다.

일본의 현 중장년층 또한 급격한 사회변동 기간에 출생한 코호트들이다.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시민법과 노동법은 교육과 고용에서 성의 평등화를 규정하였다(Martin & Tsuya, 1991). 하지만 교육수준에 있어 성차이는 계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50년대 이후로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1970년 이후로 80% 이상의 미국 여성들이 취업하고 있는 상태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1950년대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50%선에 머물러 있다.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일본 여성들도 결혼 후에 일자리를 그만두고 가장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까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않는 것이 관행적이다(Ogawa & Hodge, 1994). 이들 중장년층은 그들 부모에 대한 강한 부양감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경우 부모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세대간의 많은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자녀들이 실제 수행하는 노부모 부양도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당연시 되기보다는 자기 위신을 유지하거나 이웃으로부터 받는 손가락질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행되는 경향이 지적되기도 한다(Ogawa & Retherford, 1994).

두 사회에서 보이는 세대간 근접성의 차이에 관련하여 세번째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경제·편린 자원의 지리적 분포이다. 미국과 일본은 전지역의 80% 이상이 도시화되어 있으며, 원활한 인구이동을 위한 교통시설을 갖추고 있다. 정확한 시기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최근 몇십년간 두 사회에서 세대간 지리적 근접성이 별로 변하지 않은 것은 도시 농촌간의 대규모의 인구 이동과 지역 구조의 개편을 미국은 20세기 초반에 일본은 1960년대에 이미 경험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도시화가 이미 이루어진 두 사회에서 세대간 지리적 근접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요인은 도시 농촌간의 경제적 기회구조나 생활양식의 차이에 관련되기보다는 도시권 안에 경제·환경적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 상황과 연관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전후 계속된 대도시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이 지역의 주택 부족과 고가의 주택 매입비/임대료를 조성하였고, 1970년대 후반 인구 및 주택의 근교화 현상을 촉진시킨 역할을 수행하였다(Ogawa, 1986). 미국의 경우 많은 노인들이 퇴직 이후 아리조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기후가 쾌적하거나 노후 편린 시설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주택시장구조가 존재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대도시권에서 심각한 주택 수급의 불일치는, 퇴직 이후 노인들이 여러 편린 환경들이 구비되어 있는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Otomo, 1992).

마지막으로, 각 사회의 문화적 규범은 세대간의 지리적 근접성을 독특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인주의는 북미점령과 유럽인의 정착과정에 조응하는 가치이다. 미국 시민의 지배적 가치로 개인주의는 독립성과 교환관계의 호혜성을 규범화하고 있다. 독립성과 상호 호혜성의 규칙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는 비대칭적 관계에 낮은 관용도를 가진다. 다시 말하여, 관계가 주는 이득과 비용의 비대칭성은 호혜자와 피호혜자의 심상에 긴장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그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

가족주의는 일본의 긴 역사에 기초한 국가적 이데올로기였으며 일본의 집단주의를 활성화하였다. 나아가 가족주의는 일본의 성공적이고도 독특한 산업화과정을 지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통적인 일본 가족에서 개인 삶의 이력은 세대간 권위-의존관계에 기초하고 있다(Akiyama, Antonucci, & Campbell, 1990: 130). 생애이력의 초기 단계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자원에 의존하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한다. 생애이력의 후기 단계에서, 자녀들은 노친을 부양하며, 노친은 그들이 받는 혜택에 대하여 정서적 애정이나 가사일의 도움과 손자녀의 보호 등의 역할

로 답한다.

다시 말하여, 미국과 일본의 가치체계는 세대간의 부조에 대한 관용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개인주의가 규정하는 독립성과 관계의 호혜성은 노후 생활 적응에 많은 긴장을 산출하는 반면, 가족주의는 노친에 대한 부양책임을 규범적으로 강제함으로써 부양에 대한 관용도를 보강하는 문화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미국과 일본에서 보이는 세대간 근접성의 차이는 각 사회내 노인층과 그들의 자녀들이 갖는 삶의 이력의 특수성, 거주지역이 제공하는 생활양식의 제한 자원, 그리고 세대관계의 규범을 기초하는 사회 고유의 문화적 가치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 이러한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생애 이력과 세대관계의 사회적 고유성과 일반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과제와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세대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세대 접근의 제한점을 극복한다. 일세대 접근은 노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사회변동과 생애이력을 다르게 경험한 세대간에 이루어진 복합적 의사결정의 결과임을 간과한다. 이 연구는 노인과 자녀의 생애이력 조건들이 세대간 근접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세대관계의 역사적 준거점을 파악하는 과제를 지닌다.

둘째, 이 연구는 지리적 가족망(*geographic family network*) 접근을 발전시킨다. 부모-자녀관계는 두 사람 관계가 아니다. 다른 자녀의 존재는 특정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착 및 교육 행위를 수정한다. 자녀의 입장에서, 형제의 존재는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을 변화시킨다. 가족내 부모-자녀간 근접성의 차이는 이러한 부모-자녀관계의 이질성을 반영한다. 이 연구는 부모-자녀간 근접성의 가족내 분포를 연구함으로써 가족내 연대와 책임의 분화체계를 구성하는 가족망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준거를 제공한다.

셋째, 이 연구는 세대간 근접성의 사회·문화적 이해를 고양하는 데 기여한다. 미국의 개인주의와 일본의 가족주의는 가족 성원간 주고 받는 연대와 부조정도를 독특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대비되는 두 사회에서 어떻게 노인 부모와 그들의 자녀들이 생애이력에 적응하고 거주지역의 환경에 대응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세대간 근접성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더욱 확장시킬 것이다.

3. 다단계 자료

다단계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미국과 일본에서 수행된 개인과 가족에 대한 표본 조사와 지역적 특성에 관한 지표들이다. 미국의 노인 부모와 자녀에 관한 정보는, 1993년 실시된 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AHEAD)에 기초한다. AHEAD 표본 조사는 70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개별 가구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자 노인과 그들 배우자와 친·양 자녀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 고 있다. 부모와 모든 자녀의 정보를 일대일 조응시킨 부모-자녀의 표본수는 전체 11,994이다. AHEAD는 아프리카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 비백인계 소수민족에 대한 표본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소수민족들의 문화적 기원, 이민사, 그리고 융합과정은 상이하다. 그러나 경제적 지위나 가족관계에 초점을 둘 때, 이들 소수민족들은 주류 백인집단과 구별되는 하나의 집단으로 이해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소수민족 출신의 노인들은 백인 노인에 비해서 경제적 지위가 일반적으로 낮은 동시에 훨씬 빈번하게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Cool, 1981; Rosenthal & Marshall, 1986; Markides & Mindel, 1987; Park, Goldscheider, & Avery, 1997).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관계에서 미국 대부분의 백인과 소수민족 노인들의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여기서는 미국 사례를 비히스패닉 백인으로 제한한다.

일본 노인 부모와 자녀에 관한 정보는 1989년 후생성 인구문제 연구소 후원으로 실시한 “제2차 생애주기 및 가구구조에 대한 인구학적 조사(DSFH)”에 기초한다. DSFH는 가구주 부부와 그들의 자녀와 부모의 인구학적 성격에 대한 국가단위의 표본 가구조사이다. 전체 6,143가구 중 70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한 가구는 1,256개이다. 먼저 이들 노인들을 포함한 가구를 선택한 다음 노인 부모에 조응하는 자녀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추출하여 총 5,176개의 일대일 조응된 부모-자녀의 표본을 구성하였다.

지역적 수준에서 활용된 지표들은 미국 정부에서 발간한 the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County and City Data Book 등과 일본 기획부에서 발간한 “통계연보” 및 “도의 사회적 지표”에 기초한다. 지역 지표들은 미국의 주와 일본의 도단위에서 구성된 인구 및 경제구조, 주택소유율, 그리고 의료시설 등에 관한다. 이들 지역단위의 지표들을 DSFH에 기록되어 있는 도의 지역코드와 연결하였지만

AHEAD에 연결하는 데는 제약이 따랐다. AHEAD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지역코드는 근린의 주들을 묶은 9개의 광범위 지역단위이다. 광범위 지역 안에 속한 주들의 경제·환경적 특성은 큰 편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광범위 지역단위를 이용하여 지역환경의 의미있는 영향을 살피는 데 취약점이 있다. 대안적으로, 본 연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주들의 가중 평균치를 계산하여 그 수치들을 AHEAD의 지역코드에 연결하였다.

4. 변수 측정

종속변수는 노인 부모가 자녀 개개인과 이루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같은 집에 사는 경우, 따로 살지만 가까운 거리에 사는 경우,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와의 지리적 거리정도는 AHEAD와 DSFH에서 다른 척도로 측정되고 있다. AHEAD에서는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와의 거리를 “그 자녀는 10마일 이상 떨어져 삽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반면, DSFH에서는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와의 거리를 같은 집의 다른 층, 가까운 이웃, 같은 시나 군, 같은 도, 그리고 기타(해외 거주를 포함하여)로 측정한다. 양 척도는 모두 공간적 거리를 측정하고 있지만, 이에 조응하는 사회적 거리감은 주관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에서 ‘10마일’에 상응하는 일본의 지리적 거리를 정의하는 일은 어려운 작업이다. 비록 도들의 지리적 면적이 다양하며, 도 안을 소통하는 데 10마일이 초과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본의 도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주에 비해 훨씬 그 면적이 작고, 그 인구밀도는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도 안에 사는 노인과 자녀들을 가까운 거리에 사는 경우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들의 측정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의 특성에 관련하여, 건강상태, 주택소유상태, 소득·소비수준을 노인 부모의 경제적 자원의 지표로 측정하였다. AHEAD는 노부모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DSFH 또한 모든 가구원에 대한 건강표를 표본조사에 첨부하고 있다. 문제점은 두 조사에 쓰여진 건강과 질병상태에 대한 문항들이 정확하게 조응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등급을 비교에 가장 적합

한 변수로 선택하였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좋다/나쁘다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노인의 경제적 지위로, AHEAD는 노부모의 총 가구소득을 묻고 있다. 총 가구소득은 사회보장비, 연금, 이자, 선물, 임금, 기타 다른 소득원을 포함한 총액 가치로 정의된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 가구 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나눈 1인 평균 가구소득을 측정하였다. DSFH는 소득 대신에 소비수준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높은 생활비를 반영하여 조사설계가 이루어진 것에 따른다. 두 측정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각 측정의 4분위 분포(quartile distribution)를 이용하였다.

주택소유상태는 노인 부모가 그들이 소유한 집에서 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분척도로 측정하였다. 노인의 교육수준을 가족 부양에 대한 태도에 관련하여 중요한 지표로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중등학교 수준 이상(혹은 8년 이상의 교육년수)과 더 낮은 교육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밖에도 노인 부모의 결혼상태, 성, 연령을 그들의 생애조건에 관련하여 중요한 변인들로서 측정하였다.

자녀의 성격에 관련하여, 형제수, 결혼상태, 출생년수와 순위, 교육수준, 성, 친·양자관계 등을 측정하였다. 자녀의 교육년수와 친·양자관계에 대한 정보는 일본 자료에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자료에 한정하여 측정하였다. 형제수는 노인이 적어도 한 명의 자녀와 같이 혹은 가까이 살 수 있는 기회를 결정한다. 형제수는 연속적인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자녀의 경제적 지위, 가족 역할, 그리고 세대관계의 지표로서 자녀의 결혼상태를 측정하였다. 자녀의 출생년도를 코호트간 태도차이의 지표로 측정하였다. 자녀의 출생년도는 1940년 이전, 1940년대, 1950년 이후 태어난 경우로 삼분하여 측정하였다. 자녀의 출생순위는 첫째 자녀를 이후 서열의 자녀들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자녀의 교육수준을 부모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데 지불되는 기회비용의 지표로서 측정하였다. 자녀가 12년 이상의 교육년수(고졸 이상)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이분으로 구분하였다. 많은 미국 가족들은 양부모-양자관계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준혈연 부모 자녀관계는 약한 연대에 기초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비교성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친·양자관계를 미국 노인과 그들 자녀간의 유대의 지표로 측정하였다.

지역경제의 지표로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노인인구구성비, 실업률을 조정한 1인당 연간소득, 연간 진출자수에 대한 전입자수의 비를 측정하였다. 지역의 편린환경의 지표로서 주택소유율과 공공 의료시설수(65세 이상 노인 100,000명당 의사수)를 측정하였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AHEAD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코드는 여러 주

들을 지역적 근접성에 따라 묶은 9개 범주의 광의의 지역단위와 도시/농촌(MSA/non MSA)의 이분 척도이다. 이 연구는 주들의 인구 특성에 가중치를 부여한 평균값을 지역단위의 효과로서 측정한다. 두 사회의 지역적 분포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들 지역지표들의 분포를 4분위 척도로 재구성하여 이용하였다.

5. 세대간 근접성의 가족내 이질성과 이에 대한 가족망 분석기법

노인 부모와 자녀 개개인의 성격이 일대일 조응된 자료는 가구단위로 총화되어 있다. 이렇게 가족단위로 총화되어 있는 부모 자녀의 조응된 자료의 문제점은 부모 자녀 사례가 무작위 독립성(random independence)을 지니기 어렵다는 데 있다. 총화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은 총화효과에 대한 무작위적 확률접근(random effect model)과 모수적 접근(fixed effect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 (Altonji & Dunn, 1996; Pitt & Rosenzweig, 1990; Baltagi & Griffin, 1984). 여기서는 가족총화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가족망(family network)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이 모델이 규명하려는 총화효과는 지리적 서열상 다른 위치에 있는 자녀가 특정 자녀와 부모와의 근접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킨다.

가족망 기법을 발전시킨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변이분산 분석기법(ANCOVA)을 이용하여, 세대간 근접성의 가족내 이질성을 가장 적절하게 측정하는 가족내 분산구조를 규명하였다. 공변이분산 분석의 결과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자녀(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나머지 자녀들(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들)의 근접도의 분포는 다르며(분산의 이질성) 또한 연관되어 있음(분산의 공변이성)을 발견하였다.

다음 단계로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자녀와 나머지 자녀들의 자료를 분리하여, 해당 자녀가 부모와 이루는 근접성이 상대방의 유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제1서열에 위치하는 자녀와의 근접성에 대한 총화효과(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들의 효과)를 규명하는 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였다. 첫째,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들의 근접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2서열 이상의 자녀들의 수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모든 자녀들의 근접도를 공변인으로 포함할 경우, 변인들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하여 분석의 신뢰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의 근접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서열 자녀들의 최적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들의 변인들을 단계적으로 모델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세번째 이상의 지리적 서열에 있는 자녀들의 변인은 모델을 의미있게 개선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서열에 위치한 자녀의 성격을 증화효과로 한정한다. 두번째 조건은 가족증화효과가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 한정하여 분석한다는 점이다.¹⁾ 증화효과로서 제2서열에 위치한 자녀의 변인들은 출생년도, 성, 혼인상태, 교육수준(미국 모델에 한함), 그리고 혈연관계(미국 모델에 한함)이다.

제2서열 이상의 서열에 위치한 자녀들의 부모와의 근접성에 대한 증화효과는 두 가지 점에서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의 근접성과는 다르게 분석되었다. 첫째,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들의 근접성은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의 근접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의 근접성을 조건변인으로 통제하였다.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가 실제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는 모든 자녀가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이 경우를 제외하였다. 둘째,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사례는 적기 때문에, 근접성에 대한 삼분 척도는 적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제2서열 이상의 자녀의 부모와의 근접도는 노인 부모와 멀리 사는 경우와 가까이 사는 경우로 이분하여 살펴본다. 증화효과로서 통제된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의 특성은 혼인상태, 성, 교육수준(미국 모델에 한함), 그리고 혈연관계(미국 모델에 한함)이다.

6. 불완전한 자료에 대한 보완 기법

높은 비용답률이나 비체계적인 조사설계 방법은 모수 추정에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신뢰도 있는 추정을 위해서는 표본의 무작위성(random sample theory)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는 정부단체가 학술 전

1) 한 명의 자녀만을 가진 노인 부모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를 여기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문가 및 훈련된 조사자들과의 협력 속에 세심하게 수행한 국가단위의 표본조사이다. 하지만, DSFH 가구조사를 통하여 재구성한 부모-자녀의 조응된 자료는 상당한 정도의 비응답률을 포함하고 있다. 높은 비응답률의 원인으로 가구주 기입식 설문방식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설문방식에서는 가구주가 동거중이거나 별거중인 가족원을 대신하여 응답하기 때문에 비가구주 가족원에 대한 응답률은 가구주 자신에 대한 응답률보다 낮은 경향이 일반적이다. 또한 노인 부모가 가구주가 아닐 때, 노친의 결혼한 아들이 가구주인 경우가 지배적이다. 이 경우 노인 부모에 조응하는 자녀의 자료는 가구주의 형제의 특성으로부터 구성되는데 가구주의 형제에 대한 응답은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문항간 응답 유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한 문항에 비응답을 보인 사례는 다른 문항에서도 비응답을 보이는 경향이 보였다. 이렇게 여러 문항간 동시에 나타나는 비응답 현상은 특정 가족사례가 선택적으로 관찰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의혹을 일으킨다.

비응답 사례로 인해 발생하는 분석의 오류는 다양한데 작게는 그릇된 표준오차로 인하여 추정치의 효율성(efficiency)이 약화되거나, 크게는 추정의 편파성(biasedness)이 크게 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비응답 사례를 처리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EM 알고리즘과 작위적 비응답 사례(non-random missing cases) 조정방법을 활용하였다. EM 알고리즘은 비응답 구조가 무작위적일 경우(missing at random) 추천되는 자료보완방법이다(Little & Rubin, 1987). 비응답구조가 무작위적일 경우란 한 변인의 비응답률이 그 변인의 실제의 값에 독립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EM 알고리즘은 손상되지 않은 값들을 특정 모델에 회귀시켜 손상된 자료의 값들을 최대한의 적합도 기준에서 추정하는 '우도추정기법'(likelihood-based inference method)을 활용한다. EM 알고리즘 과정을 간략히 요약하면, E(expectation) 단계로, 비응답을 가진 변인의 관찰된 값만을 다른 공변인들로 회귀시켜 그 변인의 누적확률분포를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된 누적확률분포를 기초로 하여, 관찰되지 않은 값을 무작위적으로 추정한다. M(maximization) 단계로, E단계에서 추정된 비응답 값들과 실제로 관찰된 값들을 다시 공변인들로 회귀시킨 다음, 새로운 누적확률분포를 추정한다. 이러한 EM 알고리즘을 계수의 모수들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한다. EM 알고리즘은 센서스에서 흔히 이용하는 자료보완방법인 Cold Deck이나 Hot Deck 방법보다 추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나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후자의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EM 알고리즘은 손상된 변인의 비응답률이 그 잠재적 값에 독립적인

경우에 적절한 방법이다.

만일 비용답률이 관찰되지 않은 실제의 값이나 외생변인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일어날 경우 관찰된 값을 다른 공변인들로 회귀시켜 관찰되지 않은 값을 추정하는 것은 오히려 오차를 증폭시킬 수 있다. 자료 손상이 이렇게 된 경우를 작위적인 비용답(missing at non-random)으로 정의된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여러 문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비용답 사례들은, 특정 가구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선택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것을 반영하는데, 이 경우 비용답률은 변인의 값이나 측정되지 않은 공변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작위적 비용답의 경우로부터 비롯한 추정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종속변수의 비용답률을 가구주의 특성으로 회귀하여 비용답률의 표준누적분포(normal cumulative function, Φ)와 밀도함수(density function, φ)를 추정하였다. 이 두 분포를 기초로 역의 Mill's Ratio($\lambda = \varphi / \Phi$)를 구성하여, 응답의 작위성을 가리키는 지수변인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λ 값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경우, 지리적 근접도가 관찰되지 않을 확률은 그 잠재적 값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²⁾

7. 연구 결과1: 노인 부모와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의 지리적 근접도

〈표1〉은 미국과 일본에서 노인 부모와 지리적 근접도상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 사이의 근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에 제시된 계수들은 노인들이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에 대하여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사는 경향의 확률비(odds ratio)이다.

이제 각 수준들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노인 특성의 효과를 살펴보면, 미국 노인의 경우, 고령의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적은 노인보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경향은 강한 반면 가까이 사는 경향은 약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사는 경향은 연령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2) 여기서는 작위성 지수(λ)를 통제한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EM 알고리즘을 통한 결과는 따로 첨부하지 않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는 분은 저자에게 요청하기를 바란다.

〈표1〉 노인 부모와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가 이루는 지리적 근접도의 결정요인

공변인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의 근접도		미국				일본					
			동지 vs. 원거리		근거리 vs. 원거리		동지 vs. 원거리		근거리 vs. 원거리			
	odds ratio	S.E.	odds ratio	S.E.	odds ratio	S.E.	odds ratio	S.E.				
노인의 특성												
나이												
70-71	0.71	0.20	1.61	0.32	*	1.09	1.61	1.06	1.58			
75-79	0.50	0.13	**	1.27	0.21	1.17	2.22	1.17	2.22			
80-81 (중기: 85세 이상)	0.86	0.21	1.09	0.20		0.91	1.41	1.19	2.39			
결혼상태												
유배우자 (중기: 무배우자)	0.43	0.07	***	1.05	0.10	0.83	0.38	2.61	1.32			
건강상태												
나쁘다 (중기: 좋다)	1.56	0.22	***	1.17	0.17	*	2.21	1.03	0.86	0.43		
주거소유상태												
자가소유 (중기: 기타)	0.96	0.11		1.25	0.12	0.47	0.16	*	0.67	0.16		
소득 (소마수준: 불확분포)												
1분위 미만	1.91	0.28	***	1.08	0.11	15.2	9.63	***	1.87	1.22		
1-2분위	1.41	0.28		1.12	0.14	4.71	2.21	***	1.32	0.41		
2-3분위 (중기: 3분위 이상)	1.23	0.25		0.92	0.11	3.71	1.55	***	1.27	0.36		
성												
남 (중기: 여)	1.08	0.17		0.90	0.09	1.53	0.39	0.93	0.35			
교육수준												
8년 이상 (중기: 8년 미만)	0.53	0.09	***	0.52	0.06	***	0.39	0.11	**	0.11	0.15	**
자녀의 특성												
형제수 (본인포함)												
형제 한 명 증가시	1.83	0.12	***	1.68	0.08	***	1.57	0.26	**	1.17	0.21	*
출생년도												
1940년 이전	1.15	0.38		1.91	0.36	***	31.5	26.7	**	12.5	11.1	*
1940년대 (중기: 1950년 이후)	1.09	0.19		1.43	0.16	***	1.57	1.78	***	2.19	0.95	*
결혼상태												
비혼인 (중기: 혼인상태)	12.0	1.71	***	0.87	0.09	13.1	6.41	***	1.03	0.33		
성												
남 (중기: 여)	1.12	0.13		0.87	0.08	5.80	2.03	***	1.08	0.37		
출생순위												
첫째 (중기: 기타)	19.2	1.56	***	10.3	2.07	***	31.1	21.1	***	9.56	10.5	*
교육수준												
12년 이상 (중기: 12년 미만)	0.61	0.09	**	0.66	0.07	***						
직업관계												
양자 (중기: 전자직)	0.31	0.13	**	0.41	0.09	***						
지역특성												
가속대 등화효과							다음 페이지 참고					
							다음 페이지 참고					
Muller's ratio						0.59	0.09	***	0.93	0.18		
상수	3.74	0.61		0.06	0.10	0.87	2.51		2.13	2.53		
2loglikelihood												
				1995.1					711			
Pseudo R ²												
				0.22					0.38			

〈표1〉 노인 부모와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가 이루는 지리적 근접도의 결정요인(계속)

공변인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의 근접도													
	미국						일본							
	동거 vs. 원거리			단거리 vs. 원거리			동거 vs. 원거리			단거리 vs. 원거리				
	odds ratio	S.E.	Z	odds ratio	S.E.	Z	odds ratio	S.E.	Z	odds ratio	S.E.	Z		
지역특성														
도시 농촌 거주														
도시:농거: 농촌	1.09	0.17		0.17	0.12		1.57	0.60		2.18	0.86			
노인인구 경제활동인구비														
1분위 상승	0.97	0.06		0.87	0.01	***	0.50	0.15	*	0.87	0.26			
전일자 진출자비														
1분위 상승	0.89	0.06		0.73	0.03	***	0.72	0.15		1.15	0.23			
소득수준														
1분위 상승							1.19	0.29		0.90	0.22			
주택소유율														
1분위상승	1.49	0.13	***	1.09	0.06		1.95	0.56	*	1.05	0.31			
노인 100,000명당 의사수														
1분위상승	0.89	0.06		0.87	0.01	***	1.06	0.28		1.23	0.33			
가족내 총화효과														
제2서열에 위치한 자녀의 특성														
결혼상태														
비혼인 증가: 혼인	1.16	0.17		0.83	0.09		1.72	0.97		2.05	1.22			
출생년도														
1940년 이전	0.65	0.16		0.98	0.16		1.08	0.80		1.01	0.76			
1940년대 증가: 1950년 이후	0.76	0.13		1.07	0.12		0.15	0.18		0.50	0.20			
성														
남: 증가: 여	1.52	0.20	***	1.05	0.09		0.73	0.25		0.58	0.20			
교육수준														
12년 이상: 증가: 12년 미만	0.81	0.13		1.02	0.10									
혈연관계														
양자: 증가: 전자녀	0.38	0.11	**	0.69	0.13									
2loglikelihood			1995.1						711					
Pseudo R ²			0.22						0.38					

주: * p < .05, ** p < .01, *** p < .001

미국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 경향은 노인의 결혼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배우자가 있는 미국 노인이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함께 사는 확률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해 57%포인트 낮게 나타난다. 반면, 일본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 경향은 노인의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노인의 건강상태가 세대간 동거 경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국과 일본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미국 노인들은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노인들보다 그들 자녀와 함께 사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일본 노인의 건강상태는

세대간 동거에 의미있는 효과를 지니지 못한다.

노인의 주택소유상태의 효과 또한 두 사회에서 다르다. 미국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노인들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노인보다 제1서열에 위치하고 있는 자녀와 가까이 사는 경향이 강하지만, 자녀와의 동거 경향은 노인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제1서열에 위치하고 있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경향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주택을 소유한 노인에게서 유의하게 약하게 나타나지만, 자녀와 가까이 사는 경향은 노인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일본 노인의 세대간 동거가 노인의 집보다는 자녀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세대간 동거가 일종의 수정된 상속 제도에 기초한다는 기존의 주장에 반대되는 증거일 수 있다(Hirosima, 1985). 단 현 주택소유상태는 이전의 상속을 통해 변한 결과라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소득 수준이 중앙값보다 낮은 미국 노인들은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 노인의 소비수준도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경향과 강한 역의 관계를 가지는데, 계수의 절대치가 미국보다 큰 점을 고려할 때, 노인의 경제적 자립도가 자녀와의 동거경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미국보다 일본에서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사회의 노인 부모가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함께 사는 경향은 노인의 교육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중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습득한 미국 노인들이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사는 경향은 좀더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에 비해 50%포인트 낮게 추정된다. 유사한 교육효과가 일본에서도 보이지만, 교육수준에 따른 근접도의 차이가 미국의 경우보다 강하다. 이러한 결과는 현 일본 노인 일반의 낮은 교육수준과 대비하여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들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의 특성이 세대간 근접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두 사회 모두에서, 형제수가 많을수록,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혹은 가까이 사는 경향이 강하다. 흥미롭게도 형제수가 부모와 함께 혹은 가까이 사는 경향에 미치는 효과는 일본보다 미국에서 강하다.

이는 두 명 이상의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사는 경향이 미국에서 상당히 약하다는 점, 다시 말하여 부모와의 동거를 두고 자녀간의 역할분화가 미국에서 좀더 뚜렷함을 가리킨다.

자녀의 연령은 두 사회 모두에서 의미있는 효과를 가지는데, 특히 일본에서 그 효과가 크다. 미국의 경우,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가 노인 부모와 가까이 사는 경향은 1950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보다 1940년 이전이나 1940년대에 출생한 자녀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지만, 부모와의 동거 경향은 자녀의 출생년도에 따라 별로 차이가 크지 않다. 일본의 경우,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사는 경향은 1950년 이후에 출생한 자녀보다 1940년 이전 혹은 1940년대에 출생한 자녀에게서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일본에서 세대간 지리적 근접성이 자녀의 출생년도에 따라 차이가 큰 것은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라 가족관이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반영한다.

두 사회에서,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가 노인 부모와 함께 사는 경향은 자녀의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결혼한 자녀에 비해 부모와 함께 사는 경향이 12-13배 정도 강하다. 한편, 두 사회에서 부모와 가까이 사는 경향은 자녀의 결혼상태에 따라 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부모와 함께 사는 경향에 있어서 자녀의 성별 차이는 일본에서 크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사는 경향은 성별로 그리 큰 차이가 없지만, 일본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는 현저하게 아들 선호적으로, 제1서열에 위치한 아들이 그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경향은 딸의 경우보다 5.8배 정도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회에서, 첫째 자녀는 다른 자녀에 비하여 노인 부모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사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출생순위의 효과는 미국에서보다 일본에서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점은 일본의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코호트들간 가치관의 현저한 차이와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규범시되는 첫째 아들과의 동거선호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 자료의 결여상, 자녀의 교육수준이 부모와의 지리적 근접도에 미치는 효과는 미국 사례에 한하여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12년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그보다 낮은 교육수준을 받은 자녀에 비해 노인 부모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사는 경향이 유의하게 약하다. 이는 리트윅(Litwak & Kulis, 1987)이 주장하듯이 교육수준이 높은 자녀일수록 그들의 직업과 관련하여 지리적으로 이동할 필요를 강하게 가지는 결과 부모가 사는 거주지에 머무르는 데 기회비용을 크게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에서,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가 노인 부모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사는 경향은 양자보다 친자에게서 강하게 보인다. 이는 결혼의 위기를 경험한 가족에서 가족 유대가 약함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가족내 증화효과, 다시 말하여 지리적 근접도상 제2서열에 위치한 자녀의 특성이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가 부모와 이루는 지리적 근접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미국의 경우,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가 부모와 가까이 사는 경향은 제2서열에 위치한 자녀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한 경우에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아마도 자녀와 함께 사는 미국 노인 부모의 대부분이 결혼한 자녀보다는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다시 말하여,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결혼한 자녀보다 더 부모와 가까이 살기 때문에, 만일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떨어져 산다면, 다른 자녀도 떨어져 사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발견은 미국 노인 부모가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함께 사는 경향은 제2서열에 위치한 자녀가 딸인 경우보다 아들인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또한 미국 노인 부모가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사는 경향은 제2서열에 위치하고 있는 자녀가 친자에 비하여 양자일 경우 훨씬 약하다.

일본의 경우, 제2서열에 위치한 자녀의 결혼상태, 성, 출생년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지니고 있지 않다. 비록 미국 모형에 비하여 한정된 변수들만이 분석되었지만, 제2서열에 위치한 자녀의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부모와의 지리적 근접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은 일본에서 세대관계와 교류는 자녀들 사이에 상당히 위계적인 동시에 역할분담 정도가 낮은 것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수준의 효과를 살펴보자. 두 사회에서, 노인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경향은 도시-농촌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노인 부모가 자녀와 가까이 사는 경향은 일본사례에 한하여 도시-농촌 거주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일본 노인은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가까이 사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의 경우, 노인 부모가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가까이 사는 경향은 지역의 연령구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고령의 인구구조를 가진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 노인은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가까이 사는 경향이 약하다. 이는 젊은 연령구조를 가지는 지역에 노인 부모와 그들의 자녀가 함께 머물러 있을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도, 도의 인구 구조는 노인 거주자의 친족 접근도(kin availability)를 반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령의 인구구조를 가진 도에 거주하는 일본 노인 부모는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함께 사는 경향이 약하다. 도시·농촌간 인구이동이 미국에 비해 일본에서 더 늦게 진행된 점을 고려한다면, 세대간 근접성과 지역의 인구구조는 두 사회에서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지역의 노령 인구구조는 지역 거주자가 지역과 함께 노쇠하는 지역 고령화(aging in place) 현상으로 조성된 경향이 강하다. 또한, 아리조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은퇴지역의 연령구조가 평균보다 고령화를 보이는 것은, 은퇴 이후 많은 노인들이 자녀와 떨어져 선벨트지역으로 이동한 결과 이들 지역에서 세대간 근접성이 약하게 된 것일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지역별 연령구조는 미국에서보다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지역별 인구구조의 차이는 지역고령화나 노년층의 인구이동의 요인보다는 과거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동의 효과가 아직 소진되지 않은 것에 따르는 것으로 추정해본다.

지역의 주택수급 상황이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함께 사는 경향에 미치는 효과는 기대한 것과는 대조된 양상을 보인다. 주택소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에 사는 일본 노인들은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함께 사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도시 일반의 주택수급상황이 농촌에 비하여 취약하기 때문에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세대간 동거율이 큰 점을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소유율이 높은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세대간 동거 경향은 세대간 동거를 통하여 생계비와 주택비를 감소하려는 가구 경제전략의 결과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지역의 의료시설 설비수준은 노인 거주자들이 그들의 자녀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사는 경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의사를 가진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 노인들은 그들의 자녀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사는 경향이 약하다. 반면, 일본의 경우 도에 설비된 의료시설의 양은 세대간 근접도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다. 따라서 일본에서 아직도 지배적인 가족중심의 의료행위는 공식적 의료서비스의 절대적인 양의 부족이라는 공급의 차원에도 기존 서비스체계에 대한 낮은 이용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8. 연구 결과2: 노인 부모와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들과의 근접도

다음으로, 지리적 근접도상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들이 어느 정도 부모와 떨어져 있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이들의 지리적 근접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자. 전형적으로, 노인 부모는 자녀 개개인과 다른 근접도를 유지한다. 어느 자녀와 가장 가까이 살 것이며, 또 어느 정도의 근접성을 유지할지는 세대간 교류행위와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선택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 역시 부모와 연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자녀의 부모와의 지리적 근접도는 노인 부모와 자녀의 생애과정 조건들과 거주지의 제반 환경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절에서는 노인 부모와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들과의 지리적 거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주 분석 결과는 <표2>에 제시된 것과 같다. 먼저, 노인 부모의 특성이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의 거리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함께 사는 미국 노인의 경우,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은 무배우자 노인에 비하여 유배우자 노인인 경우에 43%포인트 강하게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무배우자 노인은 유배우자 노인에 비하여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함께 사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미국 노인 부모의 결혼상태별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의 근접도를 구조화해 보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응집적인 가족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노인 부모의 건강상태는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함께 사는 경향을 강화시키지만, 제2서열 이상에 있는 자녀와의 거리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가까이 사는 미국 노인 중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소유한 노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이 약하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 부모의 주택소유 상태가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의 근접도에 미치는 효과와 일치한다(<표1> 참조). 다시 말하여 미국 노인 부모가 자신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 그들 자녀들은 부모의 이웃에

〈표2〉 노인 부모와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가 이루는 지리적 거리정도의 결정요인

변인	제1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의 거리		미국				일본			
			원거리 vs. 근거리		원거리 vs. 근거리		원거리 vs. 근거리		원거리 vs. 근거리	
	odds ratio	S.E.	odds ratio	S.E.	odds ratio	S.E.	odds ratio	S.E.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의 근접도			동거		근거리		동거		근거리	
노인의 특성										
나이										
70-74	0.95	0.23			0.87	0.11			0.71	0.17
75-79	0.70	0.17			0.91	0.11			0.90	0.20
80-84	0.69	0.15			0.90	0.11			0.75	0.16
85세 이상										
결혼상태										
유배우자	1.43	0.23	*		0.96	0.08			1.02	0.14
부배우자										
건강상태										
나쁘다	0.98	0.13			0.87	0.07			1.08	0.13
좋다										
주택소유상태										
지가소유	0.85	0.12			0.79	0.06	**		0.99	0.12
기타										
소득 소비수준										
1분위 미만	0.75	0.11			1.06	0.12			0.84	0.13
1-2분위	0.67	0.13	*		1.10	0.12			1.08	0.18
2-3분위	1.09	0.21			1.08	0.12			1.12	0.18
3분위 이상										
성										
남	0.75	0.11			1.00	0.09			0.88	0.12
여										
교육수준										
8년 이상	1.17	0.16			1.33	0.11	***		0.92	0.11
8년 미만										
자녀의 특성										
형제수										
본인포함										
형제 한 명 증가시	1.11	0.07	*		0.93	0.04			1.16	0.08
증가시										
출생년도										
1940년 이전	1.39	0.32			0.58	0.08	***		0.52	0.11
1940년대	1.00	0.16			0.77	0.07	**		0.91	0.16
1950년 이후										
결혼상태										
비혼인	0.77	0.10			0.96	0.09			0.60	0.10
혼인상태										
성										
남	1.01	0.13			1.10	0.08			0.86	0.09
여										
출생순위										
첫째	1.10	0.17			0.48	0.04	***		0.79	0.12
기타										
교육수준										
12년 이상	2.15	0.31	***		1.67	0.14	***			
12년 미만										
혈연관계										
양자	2.23	0.81	*		1.57	0.21	**			
친자녀										
지역특성										
가옥내 통화효과									다음 페이지 참조	
									다음 페이지 참조	
통계적 지표										
Mull's ratio									1.00	0.06
상수	0.12	0.85			1.88	0.16			0.37	0.70
2loglikelihood		3617.2				1546.2			2046	350.1
Pseudo R ²		0.06				0.07			0.08	0.18

〈표2〉 노인 부모와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가 이루는 지리적 거리정도의 결정요인(계속)

동변인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의 근접도			미국			일본					
	동거 vs. 원거리			근거리 vs. 원거리			동거 vs. 원거리			근거리 vs. 원거리		
	odds ratio	S.E.	Z	odds ratio	S.E.	Z	odds ratio	S.E.	Z	odds ratio	S.E.	Z
제2서열에 위치한 자녀와의 근접도	동거			근거리			동거			근거리		
지역특성												
도시 농촌 거주												
도시 (농거:농촌)	0.84	0.12		0.91	0.08		0.47	0.06	***	0.79	0.31	
노인인구 경제활동인구비												
1분위 상승	1.05	0.07		1.03	0.04		1.11	0.09		0.91	0.23	
전일사 진출차비												
1분위 상승	1.08	0.07		1.07	0.05		0.96	0.06		0.72	0.33	
소득수준												
1분위 상승							1.23	0.10	**	1.13	0.36	
주택소유율												
1분위상승	1.05	0.15		0.93	0.07		0.88	0.08		0.71	0.22	
노인 100,000명당 의사수												
1분위상승	1.04	0.12		0.99	0.06		0.71	0.06	***	0.51	0.13	**
사후대 증화효과												
제2서열에 위치한 자녀의 특성												
연혼상태												
비혼인(혼거:혼안)	0.57	0.09	***	0.95	0.08		0.95	0.15		3.86	2.45	
출생년도												
1940년 이전							1.78	0.38	**	11.9	8.77	***
1940년대 (중기:1950년 이후)							1.32	0.23		1.11	0.40	
1960년 이후 (중기:1950년)	0.78	0.12		0.49	0.04	***						
성												
남 (여자:아)	1.00	0.13		0.89	0.07		1.67	0.31	**	1.31	0.39	
교육수준												
12년 이상(중기:12년 미만)	1.01	0.14		1.23	0.10	*						
한연관계												
양자 중(기:전제사)	0.71	0.25		1.64	0.31	**						
2loglikelihood	1517.2			1516.2			2045			350.4		
Pseudo R ²	0.06			0.07			0.08			0.18		

주: * p < .05, ** p < .01, *** p < .001

모여 사는 경향이 강하다. 비록 지역수준의 주택수급 지표는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독립적 거주능력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지역은 응집적인 가족 지리망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함께 사는 미국 노인의 경우, 전체 소득분포 중 하위

25~50등급의 소득수준을 가진 노인들은 75등급 이상의 소득수준을 가진 노인에 비하여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이 약하다. 다세대가 함께 사는 빈곤한 가족의 경우, 동거하지 않는 자녀들도 그들 가족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호 활발한 가족 부조를 교환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의 지리적 근접도를 조명해 보면, 낮은 소득수준을 가진 미국 노인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에 비해 좀더 응집된 가족망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노인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와의 근접도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자녀에게 유사하다.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의 근접도에서처럼, 8년 이상의 교육수준을 받은 미국 노인 부모는 좀더 낮은 교육수준을 받은 노인에 비하여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은 미국 노인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와 분산적인 가족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노인 부모의 건강상태, 경제상황, 그리고 교육수준은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의 거리정도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 부모에 대한 일본 자녀들의 부양책임은 위계적인 동시에, 역할분화가 취약함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여 일본 노인 부모의 경우, 좀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로부터 부조를 받고 있지 않다. 노인 부모의 특성 중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진 변인은 결혼상태인데,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가까이 사는 일본 노인 중, 유배우자 노인은 무배우자 노인에 비하여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 부모와의 근접도에 대하여,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들의 특성은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의 특성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가까이 사는 미국 노인의 경우,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이들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이 약해진다. 1940년 이전에 태어난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는 1950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에 비하여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이 42%포인트 약하다. 결국 자녀의 출생년도의 효과는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에서 유사한데, 1940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노인 부모는 1950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가진 부모에 비하여 응집적인 가족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함께 사는 미국 노인의 경우,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의 거리정도는 그 자녀의 결혼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은 결혼한 자녀에 비해 결혼하지 않은 자녀에게서 23%포인트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가 노인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은 자녀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큰데, 이는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의 교육수준에서 보인 효과와 동일하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은 자녀를 가진 부모는 일반적으로 분산된 가족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미국에서 준혈연 부모-자녀관계는 제2서열에 위치한 자녀들이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을 강화시킨다. 앞의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제1서열에 위치한 양자는 친자녀에 비하여 함께 사는 경향이 약한데, 결국 준혈연관계를 포함한 미국 가족은 분산적인 가족망을 가지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처럼, 일본에서도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부모가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은 결혼한 자녀에 비해 결혼하지 않은 자녀에게서 약하게 나타난다. 이는 두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좀더 활발한 가족 교류를 유지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일본 노인의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의 거리정도는 자녀의 성과 출생년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노인 부모가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가까이 사는 경우,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은 그 자녀가 딸보다 아들인 경우 더 강한데, 이는 일본에서 지배적인 아들과의 근접성이 동거형태에 한함을 가리킨다.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노인 부모가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가까이 사는 경우,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장자들은 다른 자녀들에 비하여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향이 상당히 약하다. 이는 세대간 거주형태에서 최근 보이는 커다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가족의 장자, 특히 장남은 다른 형제에 비하여 부모와 같이 살거나 이것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 가까이 살면서 노부모 부양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내 층화효과,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의 특성이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의 근접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미국 노인 부모가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은 노인 부모와 함께 사는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보다 결혼한 경우에 좀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노인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형제와 함께 사는 경우,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들은 보다 부모와 가까운 거리에서 빈번한 교류를 수행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국 노인 부모가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은 제1서열에서 가까이 사는 자녀가 1950년 이후에 태어난 코호트보다 1950년 이전에 태어난 코호트일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난다.

제1서열에서 노인 부모와 가까이 살고 있는 자녀의 교육수준과 혈연관계 또한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의 거리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은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가 낮은 교육수준을 받은 경우보다 12년 이상의 교육수준을 받았을 때 23%포인트 강하게 나타난다.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은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가 친자녀보다 양자일 경우 61%포인트 강하게 나타난다.

일본 노인 부모가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은 제1서열에서 노인 부모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사는 자녀가 1950년 이후에 태어난 코호트보다 1940년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일 경우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제1서열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딸인 경우보다 아들인 경우,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은 67%포인트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전통적인 부계적 지리망과 조응하는데, 장남과 함께 사는 경향이 강한 반면, 딸들과 차남 이하의 자녀들과는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그것이다.

지역수준의 효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광범위 지역수준의 여러 지표들은 지리적 환경과 세대간 근접성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변인의 비효과성을 근거로 세대간 근접성이 지역환경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비록 본 연구에서와 같이 광범위 지역단위는 의미있는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해도, 좀더 좁은 지역범위를 기초로 한 분석은 유의한 지역효과를 발견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경우, 농촌 노인은 도시 노인에 비하여 그들의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이 강하다.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함께 사는 일본 노인의 경우, 도시 거주인은 농촌 거주 노인에 비하여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이 53%포인트 더 약하다. 이는 농촌에서 노인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은 노인 부모들의 가업을 상속받았을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노친을 부양할 책임의식을 강하게 가지지만, 나머지 자녀들은 농촌지역의 부족한 기회구조에 불만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가계 상속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면서 도시로 이동하여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반영한다.

흥미로운 발견은,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함께 사는 일본 노인 중,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지는 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환경 속에서 조성되는 세대간 동거의 독특한 성격에 대한 탐구를 요구한다. 한편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대간 동거는 이전에 농촌에 살던 노인 부모가 도시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자녀의 집으로 이동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만일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들이 노인 부모를 모실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경제적 기회가 취약한 거주지역에 산다면, 노인 부모의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의 동거를 위한 주거이동은 나머지 자녀와의 지역적 거리를 크게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세대간 동거는 변화된 일본의 상속제도를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Kojima, 1989). 이 경우, 노인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는 잠정적으로 주택을 상속받을 것이며, 상속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비상속 자녀들은 좀더 자유로이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노인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이 강할 수 있다.

9. 맺음말 및 토론

종합하면, 지리적 근접성의 가족별 그리고 가족내 차이는 노인과 자녀세대들이 고유하게 경험한 사회변동과 생애이력의 조건에 의해 복합적으로 설명된다. 노인 부모의 특성을 볼 때, 일본 노인의 취약한 경제적 자립도는 그들이 자녀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필요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일본 노인의 경제적인 자립도가 미흡한 것은 일본 사회에서 노년층에 대한 사회복지와 연금 보장제도의 역사가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과 부모의 노후생활에 대한 가족 부양의 전통적 규범이 아직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미국에서와는 달리, 일본 노인의 자녀와의 근접도는 노인의 건강상태별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경향은 공식적 의료서비스가 노인보호에 기여하는 정도는 사회·문화적 관념에 의해 상당히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의 특성을 살펴보면, 두 사회 모두에서 장자이거나 나이가 많은 자녀들이 노인 부모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사는 경향이 강한데, 특히 일본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경향은 자녀연령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이는 일본의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출생 코호트들의 가치관이 상당히 다르다는 증거이다.

두 사회에서 보이는 자녀의 성에 따른 부모와의 근접도의 차이는 각 사회에 고유한 성의 역할관계를 반영한다. 미국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사는 경향은 아들과 딸 사이에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일본에서 아들은 딸보다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경향이 강하다.

지역수준에서 볼 때, 일본의 도시-농촌 거주지별 친족 접근도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일본 노인들은 그들의 자녀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사는 데 많은 제약은 가지는데, 이는 과거 많은 농촌지역의 자녀들이 농촌에서의 경제적 기회나 삶의 양식에 제약과 불만을 가지고 도시로 이주한 결과가 아직 그 효과를 소진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과제들을 제안한다. 우선, 이 연구는 세대간 교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발전, 사회계층, 지리적 근접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요구한다. 리트워(Litwak & Kulis, 1987)을 대표한 '수정확대가족' 접근의 이론적 진영에 있는 많은 학자들은 사회발전, 사회계층, 그리고 세대간 지리적 근접성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들 발전·계층론적 입장과는 반대로, 지리적 근접성에 대한 유대 혹은 문화적 요인을 강조하는 입장들도 왕성한 연구 업적을 보이고 있다(Markides & Mindel, 1987). 이 연구는 두 주장 모두를 지지하는 결과들을 발견하였다. 미국 사례의 경우, 노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근접도에 노인의 경제·건강상의 자립도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불안정한 결혼과 재혼으로 파생되는 약화된 세대관계는 세대간의 근접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증거이다. 발전·계층론의 접근을 옹호하는 일본 사례의 증거로서는 부모와의 근접도가 자녀의 출생 코호트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연대·문화론적 증거로, 현재 일본 사회에서 전통적인 장남 중심의 위계적인 가족관계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는 두 접근을 상호배제적인 입장에서보다는 보완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을 제안한다.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발전과 문화변동이 맺는 관계, 행위론적 차원에서 계층지향적 행위와 규범지향적 행위가 맺는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론에 기초하여 가족 및 세대관계에 대한 좀더 심층적이고 역사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앞으로 세대간 '가까운 거리'의 독특한 기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경제·정서적인 부조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자녀와의 가까운 거리는 동거의 경우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녀들의 출생년도, 출생순위, 교육수준, 혈연관계 등의 영향을 살펴볼 때, 부모와 함께 살거나 가까운 거리에 사는 경우가 이들 특성에 의해 유사한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세대간 가까운 거리와 동거형태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아마도 추정해 보건대, 이 관계는 노후 생활의 시간적 추이에 따른 거주 적응양식의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변인들은 가까운 거리에 유의한 효과를 지니고 있지 않거나, 동거에서와는 대조된 양상으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다양한 지리적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교류행위와 세대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후기 산업사회 속에서 가족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증거들을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 제1서열에 위치한 자녀와 제2서열 이상에 위치한 자녀들은 가족역할을 다소 평등하게 분담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미국의 많은 노인들은 가까운 거리 안에서 필요하다면 여러 자녀들로부터 동시에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결혼상태의 불안정과 가족해체현상이 분산적인 가족망을 활성화하는 점은 향후 미국 가족의 지리적 분포에 주요 요인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지리적 가족망은 위계적이며 자녀간 역할분화가 취약한 특성을 띤다. 세대간 교류가 같이 사는 자녀에 치우쳐 있고, 따로 떨어져 사는 자녀와 교류가 미비한 경향은, 세대간 동거에 따른 제약과 긴장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 비추어 볼 때, 미래의 일본 가족부양체계의 취약성을 예고한다. 부모 부양에 대한 장남가족 중심의 책임규정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욕구와 커다란 긴장관계를 지닐 수 있다. 일본 남성 또한 변화하는 여성 지위에 단순한 관찰자로 행위하지 않는다. 가족 내부와 외부에서 성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여, 일본 남성은 결혼시기를 미루거나 거부함으로써, '결혼'과 '아들'에 부가된 가족부양책임을 회피하는 적응양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 Agency of Management and Coordination(1991), *The Annual Japanese Statistical Year Book*, Statistics Bureau, Agency of Management and Coordination, Japan.
- _____ (1996), *Social Indicators of Prefectures*, Statistics Bureau, Agency of Management and Coordination, Japan.
- Akiyama, Hiroko, Toni Antonucci, and Ruth Campbell(1990), "Exchange and Reciprocity among Two Generations of Japanese and American Women", pp.127-138, in Jay Sokolovsky(ed.), *The Cultural Context of Aging: World Wide Perspectives*, New York: Bergin & Garvey Publishers.
- Altonji, Joseph and Thomas Dunn(1996), "The Effects of Family Characteristics on the Return to Educ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LXXVIII: 692-704.
- Baltagi, Badi and James Griffin(1984), "Short and Long Run Effects in Pooled Model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5: 631-645.
- Brents, Barbara(1986), "Policy Intellectuals, Class Struggle and the Construction of Old Age: The Creation of the Social Security Act of 1935",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3: 1251-1260.
- Bureau of the Census, US(1990), *Current Population Reports: Population Characteristics*, Series P-20, No.45, Washington D. C. : Bureau of the Census, US.
- _____ (1991),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1991", *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ies P-60, No.181, Washington D. C. : Bureau of the Census, US.
- _____ (1995),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 Bureau of the Census, US.
- _____ (1996), *US County and City Data Book*, Washington D.C. : Bureau of the Census, US.
- Clark, Margaret and Barbara Gallatin Anderson(1967), "An Anthropological Approach to Aging," pp.3~29, in Margaret Clark and B.G. Anderson, *Culture and Aging: An Anthropological Study of Older Americans*, Illinois: Charles Thomas Publishers.
- Cool, L. (1981), "Ethnic Identity: A Source of Community Esteem for the Elderly",

- Anthropological Quarterly* 54: 179-189.
- Cowgill, Donald(1972), "A Theory of Aging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pp.1-14, in Donald Cowgill and Lowell Holmes(eds.), *Aging and Moderniza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Dowl, James(1975), "Aging as Exchange: A Preface to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30: 584-594.
- Goldscheider, Frances. K. and Linda Waite(1991), *New Families, No Famil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irosima, Kiyoshi(1987), "Recent Changes in Prevalence of Parent-Child Coresidence in Japan", *Jinkogaku Kenkyu* 10: 33-41.
- International Labor Office(1985), *The Cost of Social Security*, Geneva: International Labor Office.
- Kojima, Hiroshi(1989), "Intergenerational Household Extension in Japan", pp.163-184, in *Ethnicity and the New Family Economy: Living Arrangement and Intergenerational Financial Flows*, Boulder: Westview Press.
- Lee, Hye Kyung(1987), "The Japanese Welfare State in Transition", pp.243-263, in Robert R. Friedmann, Neil Gilbert, and Moshe Sherer(eds.), *Modern Welfare States: A Comparative View of Trends and Prospects*, Washington Squares,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Little, Roderick and Donald Rubin(1987), *Statistical Analysis with Missing Data*, New York: John Wiley & Sons.
- Litwak, Eugene(1985), *Helping the Elderly: The Complementary Roles of Informal Networks and Formal Systems*, New York: Guilford Press.
- Maccunovich, D. J., R.A. Easterlin, C.M. Shaeffer, and E.M. Crimmins(1995), "Echoes of the Baby Boom and Bust: Recent and Prospective Changes in Living Alone among Elderly Widows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32: 17-18.
- Markides, K.S. and C.H. Mindel(1987), *Aging and Ethnicit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Martin, Linda and Noriko Tsuya(1991), "Interactions of Middle-Aged Japanese with Their Parents", *Population Studies* 45: 299-311.
- Ogawa, Naohiro(1986), *International Migration in Japanese Postwar Development*,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Nihon University, Tokyo, Japan.
- Ogawa, Naohiro and Robert Hodge(1994), *Patrilocality, Childbearing, and the Labour*

- Supply and Earning Power of Married Japanese Women*, NUPRI series No. 54, Tokyo: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Nihon University.
- Ogawa, Naohiro and Robert Retherford(1994), *Care of the Elderly in Japan: Changing Norms and Expectations*, Population Institute, Nihon University, Tokyo, Japan.
- Otomo, Atsushi(1992), "Elderly Migration and Population Redistribution in Japan", pp.185-202, in Andrei Rogers(ed.), *Elderly Migration and Population Redistribution*, London: Belhaven Press.
- Pampel, Fred(1989), *The Welfare State: Some Neglected Considerations*, pp.1-21, in Fred Pampel and John Williamson(eds.), *Class, Politics, and Welfare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 Keong-Suk, Frances Goldscheider, and Roger Avery(1998), "Ethnic Differences in Adjustment to Poverty and Disability among Unmarried Elderly People: An Analysis of Multistate Transitions in Living Arrangement from 1984 to 1990",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Washington D. C.
- Pitt, Mark and Mark Rosenzweig(1990), "Estimating the Intrahousehold Incidence of Illness: Child Health and Gender-Inequality in the Allocation of Time",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1: 969-991.
- Prime Ministers Office(1991), *The Life and Perception of the Elderly: The Third International Comparative Survey*, Tokyo: Chuo Hoki.
- Rosenthal, C.J. and V.W. Marshall(1986), "The Head of the Family: Social Meaning and Structural Variability",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11: 183-198.
- Schulz, James(1995), "The Economic Status of the Aged", pp.1-56, in J. Schulz(ed.), *The Economics of Aging*, London: Auburn House.
- Shanas, Ethel(1980), "Older People and their Families: The New Pione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9-15.
- Silverstein, Merrill(1995), "Stability and Change in Temporal Distance Between the Elderly and their Children", *Demography* 32: 29-45.
- Waite, Linda and Scott Harrison(1992), "Keeping in Touch: How Women in Mid-Life Allocate Social Contact among Kith and Kin", *Social Forces* 70: 637-655.

abstract

Parent-Child Differences in Attitudes, Resources, and Constraints, and the Impacts of these Factors on Generational Proximit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Keongsuk Park

This study examines multi-level factors for geographic proximities between elderly parents and their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Despite their similar economie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patterns of generational proximity. In 1993, half of US non-Hispanic white parents aged 70 or over lived separately but within 10 miles of their nearest children and a majority of them lived far from their non-nearest children. The family geographic network for Japanese elderly parents is more hierarchical. In 1989, 74 percent of Japanese parents aged 70 and over lived with their nearest children but most of them lived far from their non-nearest children.

To explain this distinctive pattern of inter- and intra-family differences in generational proximities in the two societies, this study employs a multi-level analysis which compares the relative importance of life course conditions of elderly parents and their children and economic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parents' places of residence in influencing generational proximities.